

[종합·해설]

'초고령사회'…신음하는 전남도

노인등 복지부담 경기도 7배 국고보조율 차등적용 급하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16개 자치단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나타났다. 또 전남지역 전체 노인 인구 비율은 17%로 고령사회의 기준(14%)을 넘어서 지나온다.

이같은 고령 현상은 노인복지비 지출의 부담을 가중시켜 끌어올려 지역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무시하고 복지예산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확실 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각종 부작용을 불러와 개선이 시급하다.

◇재정난 부추기는 복지예산 부담=2006년 본예산 기준 전국 광역 자치단체의 지방세 대비 복지예산 평균 부담률은 18.0%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남도의 지방세 대비 복지예산 부담률은 6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0.2%로 가장 낮은 경기도에 비해 무려 7배 가까운 부담이다.

반면 2006년 본 예산 기준 재정 자립도는 전남이 13.6%로 최하위인데 비해 경기는 68.8%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전남은 노인인구 비율 등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방세 가운데 70%정도를 복지예산에 사용, 재정압박이 심각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재정력이 넉넉한데 불구하고 복지예산 부담은 매우 낮아 전형적인 '부익부 빙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전남과 마찬가지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경북(14.4%)의 경우 지방세 대비 복지예산 부담률은 25.3%, 경남은 27.3%, 충남은 20.0%로 각각 전남을 크게 밀쳤다. ◇차등보조율 적용이 해법=자

치단체의 재정능력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문제를 비롯한 전체 복지예산의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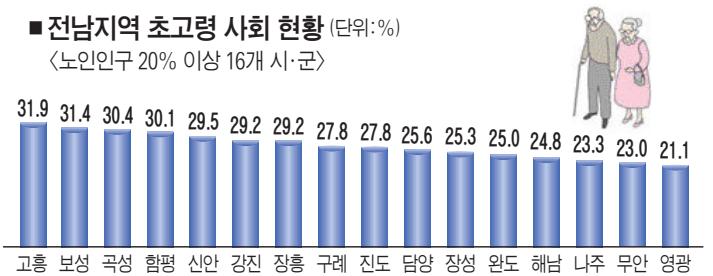
따라서 현행 복지예산의 국고보조를 차등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차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2년 말 참여 정부 출범 준비단계부터 이같은

**지방세 대비 복지예산 69% 전국 최고
자립도 최하위…열악한 재정난 가중**

■ 전남지역 초고령 사회 현황 (단위: %)

<노인인구 20% 이상 16개 시·군>



차등지원제를 적극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의 견의안에 따르면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예산의 국고보조율을 3~4단계로 차등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3단계 차등지원안은 재정자립도가 20%미만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행 80%인 복지예산 국고보조율을 90%로 상향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2006년 기준 전남(13.6%)을 비롯해 전북(18.0%), 경북(19.6%)에 대한 국고보조율

당되지 않았고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역량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했다"면서 "음주운전 경력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통일부에서 검증을 요청해 온 상태로 검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고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역량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했다"면서 "음주운전 경력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3년 2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지난 4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사표를 내고 면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고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역량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했다"면서 "음주운전 경력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면직 前청와대 행정관 통일부 간부 추천

음주운전으로 면직됐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통일부의 국장급 간부 후보로 추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열린 선발심사위원회에서 개방형 직위인 사회문화교류본부 협력 기획관 후보로 청와대 안보정책수석 실 행정관을 지낸 김창수씨 등 2명을

선정, 중앙인사위원회에 추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2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지난 4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사표를 내고 면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고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역량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했다"면서 "음주운전 경력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3년 2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지난 4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사표를 내고 면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고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역량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했다"면서 "음주운전 경력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김용환 로비 핵심 지목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장〉

〈안다미로 대표〉

■ 윤곽 드러난 '게임 비리' 수사 방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게임장 업주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김민석 회장을 30일 전격 체포함으로써 검찰의 수사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일단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을 영등위로 로비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김용환 대표를 상품권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측의 금품로비를 받고 영등위에 등급분류 청탁을 한 혐의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일간 김 회장을 상품권 발행 사업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함께 사행성 게임 비리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30일 체포시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